

동서석유화학 신임 사장에 허종필 전무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동서석유화학은 이균철 사장 후임으로 허종필 전무를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허종필 사장은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으며 1977년 동서석유화학에 입사해 울산공장장과 기획담당 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 1월1일을 기해 신임 사장으로 승진 발령된다.

글로벌 화학기업인 일본의 Asahi Kasei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서석유화학은 지난 1969년 창립된 울산의 외국인 투자기업 1호로, 아크릴섬유(Acrylic Fiber) 및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원료인 AN(Acrylonitrile)과 금광·도금용 청화소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예상매출은 6000억원, 종업원은 173명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2/29>